

우리나라 고대사 揆園史話 ⑥

규원사화

一沙權正孝 옮김

(지난호에 이어)
당요(唐堯)와 우순(虞舜) 및 하(夏)·은(殷)·주(周)의 삼대 및 진(秦)·한(漢)·수(隋)·당(唐)과 같은 것은 중토의 역대를 말하는 것이며, 협운과 훈유 및 형만(荊蠻)과 월상(越裳) 등의 무리는 상고 시대의 중국 변방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다. 한나라 무제 때 처음으로 서역과 통하여 월지(月氏)·안식(安息)·업채(奄蔡)·연기(焉耆)·우전·계빈 등의 나라들이 비로소 서적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많은 민족들은 목축을 하며 물과 풀을 쫓아 오가고 머리를 풀어 늘어뜨리거나 별거숭이 몸을 한 부류들이다.



한나라 장화(章和) 연간에 반초(班超)가 감영(甘英)을 보내어 조지(條支)를 경유하여 대진과 통교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환제(桓帝) 연희(延熹) 연간에 이르러 그 나라의 주인인 안둔(安敦)이 사신을 파견하자 비로소 통교하게 되었다. 후세 당나라 시대에 이르러 또한 당항(黨項)·토번(吐蕃)·파사(波斯)·대식(大食) 등의 나라가 있어 혹은 번갈아 앙락을 침범하거나 상선을 보내와 통상을 하였는데, 붉은 머리칼에 푸른 눈을 가진 큰 몸통이와 큰 키의 무리들로서 드물게는 궁정에까지 출입하였다.

대진(大秦)과 같은 나라는 멀리 서해의 서쪽에 있으면서 영토는 사방 수천 리에 사백여 성을 거느리고 있으니, 작은 나라로서 지배를 당하는 것이 수십 개나 된다고 한다. 돌로 성곽을 쌓고 역발의 객사를 열지어 설치하였으며, 사람들은 모두 목덜미까지만 머리를 기르고 수놓은 옷을 입으며, 달개가 있는 수레를 타고 거처하는 곳을 출입하며, 성읍은 그 주위가 백여 리로 공실은 모두 수정으로 기둥을 하는 등, 별스럽고 진귀한 풍속과 기이한 보물과 재화의 산출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세히 말할 수가 없다고 하니 그 번성하고 부강한 기풍은 그저 미루어 볼뿐이다.

송나라 시대에는 제거시박사(提轄市舶司)라는 벼슬이 있었는데 오로지 서역과의 교역 업무만을 전담하였다. 근대의 명나라 만력(萬曆) 연간에 이마두(利瑪竇)라는 자가 있어 광동으로부터 북경으로 옮겨왔는데 수리(數理)와 역법(曆法)에 관한 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사신으로 갔던 무리 가운데 북경에서 돌아온 어떤 사람이 간혹 그 예기를 전하였다. 대저 그 나라는 옛날의 대진과 같이 서역의 서쪽에 있으나 예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나라

와는 사뭇 다르다 하니, 오호라! 천하는 넓고도 넓으며 사람이 생겨난 지는 오래고도 오래구나. 후세에 과연 외는바이 거인의 나라가 있어, 다시 동남쪽으로부터 와서 이 세상과 통교를 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蓋異風殊道之國，星羅棋布於普天之下，時移物換而逐漸交通，想於神市氏之世，坐而論之，則安知世間有奄蔡 安息 天竺 大秦之國耶。然則，高辛氏之世，所謂執中而遍天下，日月所照，風雨所至，莫不服從。蓋亦自好之說(言)也。余(嶺)南之可惜，近世學者，拘於漢籍，溺於儒術，然以外夷自甘，動解華夷之說。

무릇 풍속이 다르고 법도가 틀린 나라가 하늘 아래 별처럼 늘어서 있고 바둑돌처럼 퍼져 있다가 시대가 흐르고 사물이 교환되면서 점차 서로 통하게 되는 것이니, 생각건대 신시씨의 시대에 앉아서 세상을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 업채나 안식이며 천축이나 대식과 같은 나라가 있었음을 어찌 알았겠는가. 그러한 즉 고시씨 세대에 이른바 '한가운데를 잡아 그 교화가 천하에 두루 미치니,

해와 달이 내려 비치는 곳과 비와 바람이 닿는 곳마다 복종치 않는 자가 없었다'라고 한 것은 아마도 스스로를 훌륭하게 여긴 말일 것이다. 내가 남몰래 냉소하면서 애석해 하는 것은, 근세의 학자들이 한나라의 서적에 얽매어 유교의 술수에 빠지고 흐리멍덩하여 '바깥 오랑캐(外夷)'라는 말을 스스로 달갑게 받아들여서 걸핏하면 '화이(華夷)'의 논리를 입에 올리는 일이다.

余於盛筵，賓朋齊會，皆雄談峻論之輩，

余因醉揚臂而呼曰：[君等皆中華夷，焉知我非華而中原之爲夷耶! 且夷者，從大從弓，東人之稱，太古我朝鮮，以武強鳴於世，故中原之士，聞風懼之，夷豈是戎狄之賤名耶! 國自上古，人皆強勇質直，雅好禮讓，中土有'東方君子之國'之稱焉，我國豈本戎狄之類哉! 鴨水以外，縱橫萬里之地，是乃我往聖先民，艱苦經營之地也，豈本是漢家物耶! 孔子之世，周室既衰，外族交侵，王敗死於戎狄，其他北狄 荆蠻 山戎無終之屬，侵不已，我族亦以是時，威振中土，故孔子，慨王政之不敷，恨列國之交侵，有志而作《春秋》，尊華攘夷之說，於是乎始立。若使孔子，生於我邦，則寧不指中土而謂戎狄之地乎! 滿堂含笑或辯誑，不小縱有然之者，竟不快應，余歲末而起，人皆謂清狂殊甚，可(難)數。前者，滿洲之有，廟議紛 斥和者，亦以尊周爲重，余不知其可矣。若余復出此言於 輩，則渠等應必，大驚小怪，殆將不齒，豈彼輩言，箕子之化則信，漢武之討滅則信，唐高之平定則信，而殊不知，我先民却有赫赫武勳之有足誇耀者耶! 余悲，世俗不察其變遷，以仲尼尊攘之意，自誤焉。

내가 어느 성대한 잔치 자리에서 손님

大明浦口の洛照

權寧翼 (본원부총재)

<지난호에 이어서>
겨울이라 해가 짧아 11시를 막 넘었는데 벌써 대낮이다.



산책길 곳곳에 놓인 벤치에 앉아 봄직도 하건만, 온몸이 썩어 얼어 푸른 봄에 다시 오리라 기약한다.

덕포진을 빠져 나와 조금 걸으면 '덕포진 교육박물관'이 보인다.

이곳은 오래전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김동선, 이인숙 부부 교사가 차린 박물관이다.

시력을 잃어버린 부인 이씨를 위해 남편 김씨가 만든 박물관이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오른쪽으로 오래된 교실이 눈에 들어온다. 키 작은 나무 결상과 조개탄을 넣어 불을 때던 낡은 난로가 있고, 그 위에는 찌그러진 양은 도시락 서너 개가 엮여 있다.

이씨의 벽거리는 풍금 연주에 맞춰 동요를 부르다 보면 다시 초등학교생이 된 것 같다.

드디어 대명항으로 향한다. 김포와 강화를 잇는 초지대교를 왼편으로 하고, 건너편 강화 땅이 가깝게 보이는 좁은 바다를 볼 수 있다. 썰물 때라 항에 정박한 어선의 밑바닥이 다 드러났다.

물이 빠진 틈을 타 망둥어를 낚는 낚시꾼 서너 명이 눈에 띈다. '이것도 바다냐'며 고개를 끄덕이던 어찌 이르다.

대명항은 '낙조'가 예술이다. 먼저 상상한 해를로 배부터 채운다. 대명항 수산물 직판장은 평일 낮인데도 그리 한산하지 않다.

어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이곳 삼점에서는 그날 잡은 생선과 해산물을 판매한다.

이며 벗들과 함께 모였는데, 모두 뛰어난 말솜씨로 그럴싸한 말들을 하는 무리들이기에 내가 취기를 빌어 활짝을 건어올리고 탄식하며 이르기를 [그대들이 모두 '화이(華夷)'를 말하는데, 우리가 어찌 중화가 아닐 것이며 중원이 도리어 오랑캐가 됨을 그대들이 어떻게 알겠는가!

또한 '이(夷)'라 함은 '크다'는 것과 '활'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하여 동방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서, 오랜 옛적 우리 조선이 무예가 강성하여 세상에 이름을 드날린 때문에 중원의 선비들이 그 풍문을 듣고 두려워하여 그렇게 이른 것인데,

이(夷)가 어찌 용(戎)이나 적(狄)과 같은 천한 이름이었겠는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사람들이 모두 굳세고 날래며 품성 또한 강직하고 울바르기에 평소에도 예의와 양보를 좋아하여 중원이든 '동방 군자의 나라'라는 말이 있게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어찌 그 근본이 용·적 등의 무리와 같다는 말인가! 압록강 바깥 사람 1만 리의 땅은 예전에 우리의 성인과 앞선 백성들이 어려움으로 일구어 온 평인데, 어찌 본시 한나라 놈들의 물건이었겠는가!

(다음호에 계속)

광주리마다 싱싱한 해산물들로 그득하다. 겨울철 대명항 별미는 '삼식이'와 '송이' 그리고 송이새끼 '똥아'다. 삼식은 매운탕으로 끓여내면 그 맛이 더 일품이라 한다.

삼식을 번쩍 들자 우스꽝스러운 얼굴로 입을 쩍 벌려 웃음이 절로 나온다.

대명항 주변은 크고 작은 횡집으로 가득하다. 특별한 맛 집은 없다. 신선한 생선이 있으니 대단한 비법도 필요 없다.

팔떡거리는 송이 한 마리와 삼식을 회로 때먹고, 나머지를 매운탕으로 끓여 맛본다. 쫄깃하고 달콤한 맛의 삼식은 회로도 탕으로도 일품이었다.

바다의 신선함은 회로 먼저 즐기고, 매서운 겨울의 추위를 뜨끈한 매운탕으로 녹이니 다른 반찬은 필요 없다.

부른 배를 두드리며 হাস 공원을 거닌다. 지난 9월 문을 연 이곳에는 2006년 12월 퇴역한 운동상이 정비해 있다.

운동할 내부를 개조해 합성 내에서 이뤄지는 해군의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원에는 바다를 상징하는 공공 미술 작품들과 해상 초계기, 단정, 수륙양용차 등을 전시해 볼거리가 쏠쏠하다.

항구를 빠져나갔던 바닷물이 다시 제자리를 찾으니 바다가 그득해졌다.

하늘 끝자락으로 해가 점점 내려온다. 눈부신 황금빛을 띤던 해가 산머리에 닿더니 점차 붉은 기운을 입는다.

하루를 마감하는 마지막 조업을 마친 어선 한 대가 항구로 들어온다.

지는 해가 산 뒤로 사라지면서 지평선을 빨강계 물들인다.

어선 위 높은 기둥 그림자가 항구에 진다. 코끝을 짙게 하는 바닷바람도 뜨겁게 느껴진다.

어들이 내려도 얼굴을 감춘 해가 휘날리는 주황빛 옷자락은 여전히 남아 산등성이를 타고 흐른다.

해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저녁이 찾아오자, 초지대교에 불빛이 켜진다.

의 드립니다." 라고 건의하였다. 이의도 시국 안보에 대해 있어가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 안보의식 계몽 등 광복할 사업을 거듭 보여주고 있다. <권범준 본원기자>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합니다	
<p>■ 총재단회비 △권용기(부총재) 100만원 △권주연(부총재) 60만원 △권숙동(부총재) 100만원 △권정달(총재) 10만원 △권혁승(상임부총재) 30만원 △권태일(고문) 40만원 △권영훈(감사) 80만원 △권규화(부총재) 20만원 △권오홍(부총재) 20만원 △권오영(부총재) 20만원 △권순택(부총재) 20만원 △권희택(부총재) 100만원</p>	<p>소계 600만원</p>
<p>■ 중무위원회비 △권오중(안동) 20만원 △권영욱(청송) 20만원 △권태원(안동) 20만원</p>	<p>소계 60만원</p>
<p>■ 대의원회비 △권성갑(순천) 10만원 △권해진(대구) 10만원</p>	<p>소계 20만원</p>
<p>■ 찬조금 △권성순(미국) 537,100원(미화 500달러)</p>	<p>소계 7,337,100원</p>



전장에서와 수장과 참모

권중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전장(戰場)에서 명령을 어긴 것을 그대로 둔다면 군기가 문란하여 질서가 없어지므로 때문이다.

그런데 수장(首長)인 모용농의 생각은 달랐다. 종사(宗司)를 처벌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을 잃는 것일 뿐 전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리하여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휴수에게 도리어 태수라는 높은 벼슬을 주었다. 종사(宗司)였던 사람인데 명령을 어기자 더 높은 태수로 삼은 것이다.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규칙을 어겼다고 제거하려고 한다면 자기의 세력은 점점 더 작아 질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선은 내게서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모용농은 휴수뿐만 아니라 휴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골라서 태수와 태수 바로 밑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사(長史)를 시켰는데 그런 사람이 20여명이나 되었다. 수장의 밑에 있는 사람이란 걸로는 수장을 생각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휴수처럼 자기의 이해관계를 계산하는 것이다. 그것을 모용농을 간파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참모 모두에게 충성과 의리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도 알았다. 그 요구가 강하면 그것은 그들을 떠나게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모용농은 자기에 게 남아 있으면 이익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미리 알게 해 준 것이다.

그리고 휴수를 토벌하자고 건의한 사

람들을 나무랐다. "그대의 소견이 특별히 그릇되었소. 지금 어찌하여 서로 잡아먹으려고 다름을 하는가?" 휴수를 토벌하자고 한 사람들은 걸로는 수장을 위하고 도덕과 법률을 들먹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헐뜯고 경쟁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것은 적을 앞에 두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모용농은 말하였다. "내가 북쪽으로 돌아갈 때 휴수 등은 도로 왼편에서 스스로 나를 영접할 것이니 그대들은 다만 그것을 보기만 하시오." 휴수를 자신 있게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말이다.

이것이 수장과 참모가 갖는 생각의 차이이다. 한참 선거로 온 나라가 들떠 있다. 그리고 각 후보자 진영 별로 참모들의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인다. 이들에게는 당연한 일인데 만약에 수장이 이들에게 충성과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잘라내고 하면 승리하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후에야 해야 한다. 한 참 싸움판에서는 딱 하나 더 주는 수장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누가 이길지가 눈에 보인다. (다음호에 계속)

영관장교 연합회장 이승복 사진 자료집 발간



△영관장교연합회가 발간한 자료집.

지난 11월 6일 대한민국 예비역 육.해.공.해병대 영관장교 연합회는 향군본부 7층 회의실에서 본 연합회 권오강 회장을 비롯 원로, 자문위원, 운영위원, 회원 등 향군에서는 본 출장을 위해 적극 협력한 향군 분회 이현오 코나스 편집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승복 사건 다시 알리기 자료집 2집 출판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권오강 회장은 출판식 진행에 앞서 "지난 30년간 이어온 이승복 사건 역사 '하위구조 퍼뜨려 14년의 혼돈 끝에 대법원 확정으로 진실임이 밝혀졌으나 교과서에 다시 실고 동상도 다시 세워 이승복 역사 다시 살려 안보교육 상징 삼자며"

결의와 함께 최근 우리 연합회 추진경과로 지난 10월 8일 향군 창설 60주년 청와대 초청 격려식 전국 예비역 대표 200여 명이 참석한 오찬식 회(會)대표로 인사한 후 "오늘 이 자리가 저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대통령님께 건의드릴 말씀은 과거 역사 바로 알리기입니다. 68년 120명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사건은 학교 교재에 실려 30년간이나 이 나라 학생들에게 반공안보교육의 상징이 되어 오다가 지난 10년간에 허위 조작설을 유포하여 교재에서도 삭제되어 이승복 사진 역사가 사라져 가고 있을 때 우리 예비역들의 역사 살리기 운동으로 겨우 명맥을 이어 오다가 작년 12월 9일 그의 추모제때 나라 사랑운동을 추진하는 박승춘 보존처장의 특별 관심 표명으로 전에 볼 수 없었던 강원도 전역에서 참여하는 성대한 추모행사로 이승복 역사는 완전히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승복 사건의 역사는 학교 교재, 재 등재만이 남았으니 이는 대통령님께 도와주시길 건



마음의 행복 만들기

人間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幸福의 길이 여러 가지 있다. 그 첫째 길이 每事에 의욕을 가지고 공극적인 사고와 능동적 자세로 임하며 實現할 수 있도록 努力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 둘째 적극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구성원에 참가하려고 努力해야 한다. 조직에 協調하고 發展적인 제언을 하며 특히 애정사 기타모임에 적극 참여하여 관심을 보이고 정이 넘치도록 나가 먼저 다가가기 상대방을 웃기고 즐겁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불평 불만을 자제하고 낙낙한 사람이 될려고 노력해야 한다. 넷째 가지의 삶을 열정적으로 가꿔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熱情이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열정은 상상 이상의 효과를 發揮해 幸福한 삶을 살게 해준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원하는 자는 이 네가지를 마음 속에 그림을 그려가며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조직에 기여하는 자(者)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스스로 幸福해지고 精神健康이 들어오며 나의 행복이 주위의 행복나누기가 된다.



權五福 (본원 편집위원)



회장, 국제라이온스 309지구(경동)3대 회장, 강성 흥업주 대표, 진영해운(주) 회장, (사)한국총연 협회 인문교육협의 회장, 국제라이온스

지구부총재 등을 역임하면서 교육, 봉사, 문화 발전에 정성을 쏟았다.

또한 권문의 자손으로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난 1973년 3월, 중앙총친회에 입회하여 2004년 4월 30일까지 30여년에 걸쳐서 수석부회장으로 재임했으며 2004년 5월 1일부터 삼임고문, 능동장학회 이사로, 2011년 6월 22일자 본원 삼임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더불어 특히 삼김포 답 매일 모금차관서증친회 방문 △중앙총친회관 건립기여 △북악공파조성단 기여 (1992년) △元通派宗會의 定立 등을 하면서 권문 문화발전에 공헌하기도 했다. (편

江星權文洙 본원 삼임고문 別世

江星 權文洙 大尊원 삼임고문이 지난 10월 26일 오전 10시, 속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5세.

權公은 28일 오전 8시, 많은 조문객이 참례한 가운데 경기도 광주시 남동면 안창호 산 24-9번지 백운산 個人 宗山에 안장했으며 유족으로는 이귀화 미망인, 5남매(장남 태명, 차남 태형, 장녀 태희, 2녀 태숙, 3녀 교육)가 있으며 지난 2002년 12월 22일 중앙총친회에서 公의 공덕비를 세웠다.

文洙翁(85·강릉, 북악공파 32世)은 국립 대전대 기술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전기과 3년을 수료했으며, 진양고교감, 삼척공고-여고, 강릉고, 덕수상고, 경북고 교사를 지냈으며, 서울학원, 상록학원 원장 겸